

우리나라 암각화 문양을 이용한 직물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박순천* · 원이영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어 신석기와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이어져 왔다. 신석기시대에도 빗살무늬나, 점열무늬[點列文], 격자무늬[格子文]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토기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양들은 일상용기와 무기, 의기 등이 활발히 제작되었는데, 그러한 유물들에 회화적 표현이 함께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유형으로 바위 표면에 새겨서 나타낸 바위그림인 암각화라 하는 것이 있다. 이 암각화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성기를 노출시킨 남자의 모습과 그물에 잡힌 동물 모습, 동물가면을 쓰고 주술의례를 행하는 듯한 사람의 모습과 새끼를 밴 어미고래의 형상 및 창에 찢린 고래의 모습 등이다. 암각화에 그려진 동물들은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물의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담하게 단순화되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대사의 세부를 생략하고 힘차고 굵은 선과 면으로 그려진 동물의 단순화된 형태는 우리에게 때묻지 않은 소박한 원시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력이 강인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암각화의 문양들을 조사하여 현대적으로 개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범위는 반구대 바위그림(보물 605호), 칠포리암각화군(시도유형문화재 249호), 천전리 암각화(국보 147호), 고령 양전동 바위그림(보물 605호)인 큰 암벽에 새겨진 그림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우리나라의 암각화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암각화별로 문양의 상징성과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경상도지역 암각화에 나타난 문양을 살펴본 후 대표문양을 선정하여 도식화하였다. 셋째,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한 후 패션상품에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우리나라 암각화는 새김 대상에 따라 크게

동물상과 기물도형상, 생활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물상 암각화에는 어로와 수렵을 주제로 동물과 사람을 사실적으로 쫓아 새김을 기본으로 면과 선을 파고 새긴 것으로 수렵과 어로의 풍성과 번성을 기원하는 주제로 하고 있었으며, 기물도형상의 암각화에는 방패나 고깔, 생식기 등 특정 기물이나 바위구멍, 접고리 등을 추상적 기법으로 새긴 그림은 현대적 문양의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생활상에서의 암각화는 어떤 특정 사안의 생활을 소재로 하여 기마행렬도, 항해도, 인물상 등의 그림을 철제 도구로 가는 금을 그어 새긴 것이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동물상 암각화의 대표로서 대부분의 동물그림이 모여있는 부분을 주암면이라고 하는데, 주암면의 크기는 세로 3m에 가로 6.5m 쯤 되는데 일일이 쫓아서 형태를 만든 그림들이 밀집되어 있다. 한 암면에 밑에 깔려 있는 걸 제외하고도 2백 2-3십 종류의 동물들이 문양으로 모두 합하면 3백 종류가 꼭 차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특이사항은 면 새김에 고래그림이 많이 있는데 돌고래, 향유고래, 솔피, 큰고래, 흑등고래, 흰긴수염고래 등 6종이 있다. 셋째, 문양을 수집한 것들을 도식화 작업으로 새로운 패턴물을 개발하여 어패럴디자인에 필요한 텍스타일로 패션디자인에 작품을 제작하였다. 소품으로 개발한 작품으로는 가방, 명함집, 안경집, 쿠션, 스카프 등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물작품을 제작하였다.

한 나라의 이미지와 작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상품과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화 시킴으로서 전통의 재창조라는 현대적 활용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전통문양을 개발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패션상품을 전개하고자 한다.